



분명히 1970년대 후반 대학 캠퍼스였다. “00, 참 밥맛이야” 여럿이 걸어가는데 친구 하나가 말했다. “그렇지?”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다. 그리고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필자가 ‘밥맛’이란 말을 처음 접했던 장면이다.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밥맛이라. 밥은 귀한 음식이 아닌가. 당시는 보릿고개를 넘어서 발전도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쌀은 여전히 귀했다. 쌀밥에 보리를 섞거나 밀가루 음식을 장려하던 범국민 캠페인의 기억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기였다. 그래서 생각했다. “과일이나 사탕처럼 맛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맛, 그게 밥맛이 아닐까.” 그렇다면 밥맛은 은근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친구라는 뜻이 아니겠나. 그 즈음부터 ‘밥맛’이란 말이 일상대화에 넘쳐났지만, 약간의 인지부조화를 느끼면서도 무심하게 지나쳤다.

밥맛이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 쓰임에 동의할 수 없었던 필자는 종종 “신성한 밥을 모독하는 표현”이라고 항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아마도 본디는 “밥맛 떨어져” 혹은 “밥맛 달아나” 였을 것이다. 그런 것이 ‘떨어져’나 ‘달아나’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괄호 안에 넣어 축약하는 식으로 ‘밥맛’이라고만 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종결어미 “~이야”가 자연스럽게 붙었을 것이다.

이 ‘밥맛’이 사라졌다. 요즘의 대화에선 거의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MZ세대에게는 “웬 밥맛?”이란 반응이 나올 법하다. 대신 “재수없다”, “진상이다”는 말로 대체된 듯하다. ‘밥맛’이 좋다, 나쁘다는 감정토로를 우회하면서 전달하는 뜻이 다소 모호했다면 재수가 없다, 진상이다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이다. 돌아가지 않고 직진하는 세태와 일맥상통한다.

‘밥’을 먹지 않는 시대적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는 혼식과 분식을 강제할 정도로 쌀이 부족했지만, 농림축산부는 매년 20만 톤을 웃도는 쌀 공급과잉(2022년 기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신 해마다 밀 수입량이 200만 톤이 넘는다. 국내산 밀은 전체의 1%에 지나지 않는 데도 말이다. 여하튼 쌀 대신 밀, 밥 대신 면이 식탁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굳이 맛을 논하려면 ‘밥맛’이 아니라 ‘면맛’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그럴까. 밥과 관련된 속담도 은연중 힘을 잃은 모습이다. “밥이 보약이다”는 자못 위협한 조언으로 들린다. 자르르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거다. 현미나 다른 잡곡과 섞어 먹으라고 권한다. 다이어트하는 젊은이들은 밥의 탄수화물을 걱정해 고구마를 대신 먹기도 한다. 그러나 “다 된 밥에 재뿌리기”란 속담도 현실에서 체감하기 힘들지 않겠나. MZ세대가 밥과 재의 연관성을 어찌 알겠나. 아파트 시대가 열리면서 부엌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일반 주택도 주방으로 꾸며졌고, 자연히 연료와 가열 에너지원도 가스나 전기로 대체됐다. 연탄도 거의 사라진 마당에 웬 짚불인가. 아궁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짚불이 꺼지고 남은 거무튀튀한 재를 연상할 재간이 없지 않나. 자칫 무쇠 솥뚜껑을 잘못 열었다가 아궁이의 재가 풀썩 날리면서 갓 지어진 뽕얀 밥 위에 내려앉는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콩밥을 먹는다”는 말도 그렇다. 과거 교도소에서는 부식 비용을 아끼려 밥을 지을 때 콩을 듬뿍 넣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교도소에 간다”는 말을 “콩밥 먹는다”로 우회했다. 출소했을 때 두부를 먹이는 행위도 다시는 콩밥을 먹지 말라는 의미였다. 콩을 불러 만든 두부를 먹고 콩밥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요즘은 콩밥 운운 대신 “학교에 간다”고 해야 알아듣는다. “찬밥 더운밥 가린다”는 말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배부른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이 또한 보온 겸용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가 보편화된 최근에는 썩 와 닿지 않는 속담이겠다. “더운 밥 먹고 쉰 소리 한다”는 지적도 차라리 “자장면 잘 먹고 면발 불어터진 소리 한다”는 표현이 더욱 그럴싸하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은어와 속어, 속담까지도 생멸(生滅)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도 속담은 생명력이 질겨 시대변화에 적응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기도 한다. 일종의 진화라고 할까.

외래종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용어를 보자. 우리의 “배보다 배꼽이 크다”거나 주객전도(主客顛倒)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데 요즘 경제일반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의 2018년 ‘트렌드 코리아’는 핵심 키워드로 ‘웍더독’을 꼽았다. 동서식품은 커피에 텀블러를 선물로 제공했는데, 소비자들은 정작 커피보다는 텀블러에 주목했다. 각양각색 디자인에 혹해 텀블러를 구하기 위해 커피를 사는 것이다. 어린 이들을 유혹하는 맥도날드의 장난감이나 스타벅스의 플래너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보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긴 꼬리(Long Tail) 경제학’이 대두됐다. 종전에는 잘 팔리는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대세였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틈새시장 효과로 재고로 쌓인 80%에서도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배보다 배꼽”이 주객전도의 의미가 아니라 “외형보다 핵심자산 배꼽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일 법하다. ‘꼬리 토막’도 ‘롱테일 경제학’ 관점에서 온라인 마케팅의 새로운 기법으로 자리매김할 법하고, 바야흐로 “배꼽 만세, 꼬리 만세~”인 시대이다.

정치와 관련되면 더욱 극적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은 종종 한국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정치판을 비유한다.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도 정작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행태와 같은 선상이다. 그리하여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을 피해 차악의 선택이라는 선거판에 왕왕 등장한다.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 ‘똥 묻은 개’로 완화하면서 말이다.

헌데 그 쓰임새가 이상하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것도 유분수지, 숫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싶다. 과거 한때 드라마에서 나온 “민나 도로보테스(모두가 도둑놈이다)”란 말이 유행어가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 모두가 그렇다는 거다. 대도(大盜)이나 좀도둑이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두 도둑이 아니냐 하는 인식이다. 그러다 보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향해 나무라는 것도 그것이 뭐 어쨌다는 거냐 반문하는 거다. 똥도 겨도 다 더러운 것 아니냐는 거다. 자연히 똥 묻은, 더 더럽고 부패한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허물이 드러난 정치인을 향해 당당히 송곳니를 드러낸다. 주둥이에 똥이 묻은 개는 본디 부패한 탐욕스런 정치인을, 겨가 묻은 개는 그나마 더러움을 피해 벼 껍질을 헤집다가 겨 투성이가 된 의식 있는(혹은 위선적인) 정치인을 연상하면 얼추 비슷할까.

여기에서 돌발 퀴즈. 집 안에 개 두 마리가 있다. 주둥이와 몸뚱이에 똥이 묻은 개, 그리고 겨가 묻은 개이다. 과연 주인은 어떤 개를 먼저 쫓아낼까.

두 마리 모두 다 쫓아내는 게 답일 것이다. 하지만 ‘먼저’에 주목하면 답이 엇갈린다. 혹자는 전자를, 혹자는 후자를 고를 것이다. 아무래도 주인은 전자를 우선적으로 쫓아내고 싶다. 그런데 전자가 계속 짖는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실랑이를 하다 보면 문득 조금 전까지 온 집안을 진동하던 불쾌한 냄새가 더는 느껴지지 않는다. 후각이 마비된 것이다. 재래식 화장실을 떠올리면 된다. 처음엔 코를 쥐지만, 시간이 흐르면 무디어진다. 누렁이에 된장 바른 것과 구별하기 힘들게 된다. 그 즈음부터는 집과 방안에 떨어진 겨가 눈에 띈다. 마침 전자가



맹렬하게 후자를 향해 짖고, 주인은 몽둥이를 들어 후자를 쫓아낸다. 이렇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물리치고 안방을 차지한다. 그래서 똥 묻은 개가 당당히(!) 겨 묻은 개를 향해 짖는 것이다. 우리네 선거판은 다를까.

최근에는 ‘피 묻은 개’가 등장했다. 주둥이가 피범벅인 채로 송곳니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개다. 이른바 혈견(血犬)이다. 일순 분견(糞犬)과 강견(糠犬) 모두 얼어붙는 모양새이다. 무서워 감히 짖지 못한다. 주인도 그렇다. 손에 몽둥이는 들었지만, 슬며시 뒤로 감춘다. 행여라도 달려들까 두려운 거다. 이 경우 어떤 개를 먼저 내쫓아야 할까. 당연히 혈견이지만, 용기가 필요하다. 감연히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물릴 수 있다. 이런 눈치를 챘나. 혈견이 꼬리를 살래살래 흔든다. 결연했던 마음도 풀어진다. “잘 구슬려 목줄을 채우면 방법견으로는 안성맞춤이 아닐까.”

이런 눈치보기와 신경전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위 삼견정립(三犬鼎立)의 형세가 짜여지는 모양새다. 안방 차지를 두고 벌어지는 신판 삼견지(三犬志)는 어떻게 진행될까. 혈견과 분견의 협공을 강견을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주인은 개싸움 구경에 정신이 팔릴까, 이기는 개 우리 편 식으로 차례차례 내쫓을까, 아니면 모두 비눗물에 담가 깨끗하게 목욕시킬까. 너무 나갔나. 이쯤해서 분견강견혈견론은 중지하는 게 낫겠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속담도 달라졌다. 중지(中止)도 중용(中庸)이다. 적당한 선에서 중지하는 것도 중용, 혹은 중용(重用)의 지혜인 시대이다.

먼저 시조 한 수 감상하자. 시가집 청구영언을 편찬한 김천택(1687~1758)의 수양가(修養歌)이다. “잘 가노라 달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 부디 그치지 말고 촌음(寸陰)을 아껴 쓰라 / 가다가 중지(中止)곳 하면 안이 감만 못하니라”

시조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신을 가다듬고 수양하라는 가르침이다. 잘 나갈 때 우쭐거리다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던가. 못 나간다고 자탄(自歎)만 할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법이다. 쥐구멍에도 짹하고 벌이 들 날이 있는 거다. 하지만 세상사 어디 그렇던가. 부익부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아닌가. 부자는 넘어져도 돈을 줍고, 거지는 넘어지다 동냥 쪽박마저 깬다. ‘슈퍼맨의 비애’로 뜬 DJ DOC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라는 노랫말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역시 가수 싸이가 프로듀싱한 냄새가 풀풀 난다. 그러니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로 바뀌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자.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후보 가운데 안철수와 김동연이 중도 하차했다. 안은 윤석열 후보를, 김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말이다. 모두 알지만, 안철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됐다. 겨우 0.7% 차이였지 않았다.

그 공으로 정권인수위원회위원장 자리를 꿰찼고, 이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성남시분당구갑 후보로 나서 거뜬히 당선됐다. 벌써 차기 대권 주자로, 당권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김동연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 0.15% 차이로 당선됐다. 극적인 반전으로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강력한 차기 주자로 부상했다. 안철수가 가다가 중지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이른바 보수진영에 의해 매장됐을지도 모른다. 김동연도 ‘새물결당’의 실험에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 다 선거비용 보전도 받지 못하고 말이다. 그러니 안과 김의 경우 가다가 중지해서 간 만큼 이득을 본 정도를 넘어 현실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챙긴 셈이 아닌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도 “쥐새끼 한 마리가 태산을 찌렁찌렁 울린다”는 역설로 바뀌었다. 내부자의 고발 하나가 정치사의 변곡점을 만드는 일이 술하게 벌어지지 않나. 바야흐로 ‘서일필 태산명동(鼠一匹 泰山鳴動)’이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는 뜻의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일을 경계한다. 하지만 말이 어렵다. 우물가에서 송늪 찾는다는 말로 설명해도 여전히 아리송하다. 우물 대신 수돗물, 송늪 대신 커피나 차를 마시는 세대가 아닌가. 그러자 MZ세대는 ‘연못구어’라는 기상천외 속담을 만들어냈다. 연못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거다. 끼리끼리 패거리 정치의 좁은 풀(pool)에서 인재 찾기를 비유하는 말이다. 강과 바다에서 큰 인물을 찾아야 하는데, 자기만 아는 작은 연못 속의 인재만 회전문 인사로 등용한다는 거다.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 그토록 큰 법이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

가 진나라 건국에 1등 공신인 이사(李斯)가 말했다.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라고. 이런 강과 바다에는 자연히 커다란 물고기들이 산다. 작은 연못은 소나기만 내려도 범람하기 일쑤다. 어쩌다 강에서 길을 잘못 든 커다란 물고기가 연못에 갇히면 꼼짝 못하고 작은 물고기들의 밥 신세가 된다. 그러니 얼마나 절묘한 비유인가. 과연 지금 정권은 다른가.

언어도 속담도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피할 수 없다. 시대가 흘러가고 사람이 달라지면 표현과 비유도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길을 걷는다. 지금은 조금 엉뚱한 비유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쓰면 자연히 정착된다. 어르신이 대표적이다. 본디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일컫는 용어였다. 그런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老人)이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대체해 쓰면서 지금은 아예 ‘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로 바뀌었다.

비하하는 표현으로 부당하게 쓰였던 ‘밥맛’도 머지않아 제자리를 찾게 되리라 믿는다. 내로라하는 식품회사들이 각양각색 인스턴트 밥을 선보이고 있다. 윤기 흐르는, 혹은 알록달록한 건강식이 서로 ‘밥맛’을 자랑하고 있다. 식당도 방금 지은 돌솥밥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지 않나. 아무리 먹어도 물리는 않는 맛,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디단 맛, “그래, 역시 밥맛이야”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어쩌면 쉰 밥 취급 받는 정치인들 ‘그래, 우리 밥맛이야’라고 자랑스럽게 되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들은 “밥이 곧 하늘이다”란 말을 알기나 할까. 🍚

